

『기록물관리학 개론』
(김정하 저, 아카넷, 2007)

이 정 연*

우리나라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기록물을 전담하는 기구가 마련되었다. 새로 제정된 법률의 기록물 관리기관은 기록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한다는 데 이전의 기관과 차이가 있었다. 2006년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은 지방 기록물 관리를 위한 시·도의 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의 의무화 하였는데, 이에 따라 지방의 기록물 관리기관의 설치 및 기록물 관리제도의 개선 등의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9년 기록물 관련 법령 제정 이후 10년의 세월동안 우리나라의 기록물 관리는 다른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기간에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기록보존소가 국가기록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며, 대통령 기록물을 따로 관리하는 대통령기록관이 설립되었고, 지방자치단체들에서 기록전문요원을 채용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는 별도로 얼마나 내

* 한국의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

실 있는 발전이 이루어졌는지는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다. 국가기록원의 소속이 여전히 행정안전부라든가, 지방기록관의 설치에 아직까지도 법령으로만 존재한다든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기록연구사 채용이 계약직으로 이루어진다는가 하는 사실들을 볼 때, 기록물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10년간의 기록물 관리의 비약적인 발전에는 대학의 역할 또한 크다고 할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 각 지방에서의 기록관리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에서 이루어진 연구 및 활동은 기록물 관리에 직·간접적으로 피드백 됨으로써 이론적·실제적 도움이 되었으며, 과정을 마치고 각 분야에서 기록관리전문가로 활동함으로써 이전의 비전문적인 공무원들에 의해 수행되던 기록물 관리의 업무의 한 차원 높이 끌어올렸다고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은 지금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기록연구사 등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이 학교에서 연구할 당시의 교육과정이다. 우리나라의 기록물 관리는 아무래도 영미권(미국, 영국, 호주 등)의 영향, 그 중에서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다. 교육과정 또한 미국에서 연구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벤치마크 또한 미국의 사례에서 많이 이루어졌다. 다양한 국가별 사례를 통해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기록물 관리에 대한 고민의 깊이를 더 해야 할 학교에서 그러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아쉬움을 달래 줄 한편의 책이 출판되었는데 그 책이 바로 김정하 선생님의 『기록물관리학 개론』이다.

『기록물관리학 개론』은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저자의 개론서인 만큼 유럽의 사례, 특히 기록 및 기록학에 있어서 이탈

리아(로마)의 사례에 대해 언급하면서, 기록 및 기록학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을 하고 있다. 흔히 기록학에 있어서 유럽을 이야기 할 때, 프랑스·영국·독일 이외의 국가들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많이 언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본서에서는 기록물 관리의 역사, 기록물 관리에 대한 이론적·실무적으로 접근하면서 이탈리아의 사례를 들고 기록학 관련 이탈리아 저명한 연구자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이탈리아와 더불어 독일, 프랑스, 스페인 등의 유럽의 사례와 잘 알려지지 않은 동유럽이나 남미의 사례도 필요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본서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기록과 문서 그리고 기록물에 대한 차이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모든 기록이 문서의 성격을 획득하지 않으며, 모든 문서가 기록물을 구성하는 것도 아니¹⁾'라 하면서 '기록물은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형성되며, 실제적이며 행정적이며 사법적인 활동의 결과로 축적된 문서들으로써 상호 간에 독창적이며 구체적인 관계로 형성된 문서들 전체를 의미²⁾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즉 '기록물은 수집가의 의지로 형성되는 수집물에 대치되는 개념³⁾'이기 때문에 저자는 기록관리가 아닌 기록물관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록관리라고 말해 왔던 것에 대해 독자가 한번 쯤 기록 관리와 기록물관리의 용어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여지를 제공한다.

본서에서 저자는 기록물 정리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연대기 방식, 알파벳 방식, 지리적 구분에 따른 방식, 십진법 방식, 자료별 방식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출현하여 이용되어왔는

1) 김정하, 『기록물관리학 개론』, 아카넷, 2007, p. 24.

2) *Ibidem*, p. 24.

3) *Ibid.*, p. 25.

지, 그것이 실제 기록 관리에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거짓된 정리 방식이라 단언하고 있다. 특히 주제별 분류 방식은 그것이 독일과 이탈리아의 기록물 정리에 있어서 엄청난 악영향을 미친 것을 예로 들며 반드시 피해야 할 기록물 정리방식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후 기록물 관리 역사에서 나타난 '원질서 유지 또는 재구성 원칙'의 기원과 적용, 그리고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역사방법', 프랑스에서는 '출처존중의 원칙'이라 불리기도 하는 '원질서 유지' 및 '재구성의 원칙'은 '문서들 전체의 독창적이고 객관적이며 기록물 관리적인 질서를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⁴⁾한다. 따라서 저자는 기록물 보존소에 연구 목적으로 출입하는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연구주제가 아닌 기록물과 관련된 제도에 유의하여 기록물을 열람해야 하며, 국가에 의해 생산된 문서들에는 국가의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아카이브(Archives)의 성격과 정의를 고대 로마의 Archivium의 정의와 그 사용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에 대해 근거를 통해 역사적으로 짚어보고 있다. 국가의 제도와 역사에 따라 기록물에 대한 인식 및 취급이 달라지며 그에 따라 기록물 관리 또한 달라지고 있음을 아카이브에 대한 언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장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정의를 통해 살펴본 간단한 기록물 관리의 역사는 3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다. 기록물은 종이로 된 문서가 나타나기 이전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의 역사 또한 더 이전으로 올라간다는 것 뿐 아니라, 시기별로 국가별, 사회별 다른 제도에 따라 기록물 정의, 관리 및

4) 김정하, 『기록물관리학 개론』, *op. cit.*, p. 89.

정리가 어떻게 되어 왔는지 일목요연하게 설명되어 있다. 아울러 기록물보존소가 과거에는 제대로 된 방식이 아닌 거짓된 방식으로 기록물을 정리해 오고 보존해 왔던 반면에, 현대에는 '원질서 유지'에 따라 체계적이고 독창적으로 기록물이 관리되고 보존해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특히 기록물보존소가 행위의 증거로서 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로서 뿐 아니라, 문화적·사회적·정보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록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록물보존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4장의 기록물관리제도는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의 기록물관리체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각국의 기록물 관리제도가 국가별 제도와 무관하지 않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기록물보존소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연구 주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기록물이 관련된 제도에 유의하여 기록물을 열람해야 한다는 저자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더불어 국가 관계 질서 속에서 국제기록물관리기구가 나타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제기구가 현대 기록물 관리 역사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역할을 해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즉, ICA의 결성·조직 및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하고 있다. 5장에서 저자는 교육에 관심을 두고, 기록물 관리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러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기록물관리전문가는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임무를 완수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기록물 관리 관련 교육 과정이 대학의 기본교육과 전문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저자는 이것을 언급하면서 국가별 다양성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있는데, 눈여겨 볼만한 것은 교육과정 중 대학의 기본교육과 전문기록물관리기관 뿐 아니라 시민교

육과정을 포함함으로써 기록물보존소의 사명 중 하나인 시민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6장에서 도서관과 기록물보존소의 관계를 비교적 깊이 있게 살펴보고 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두 기관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 둘을 본격적으로 구분하게 되는 상황을 설명한다. 도서관도 기록물을 보유하고 관리하고 있고, 기록물보존소도 당연하게도⁵⁾ 기록물을 보존 및 관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기관의 관계가 어떻게 정립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쟁 또한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두 분야 간의 새로운 협력이 시작되기 전 두 분야의 관계에 대한 논쟁은 공허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획일적인 접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저자는 기록물을 도서관과 동일한 표준과 동일한 방법론의 적용으로 도서관에서 도서를 다루는 것과 같이 동일하게 기록물을 다루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다. 또한 '기록물의 보존은 행정적이고 법적인 동기에 따른 임무이기 때문에 기록물보존소는 행정과 지도로부터 인적·재정적 지원을 얻어내고 정당화하기 위해 많은 수의 대중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야 한다'⁵⁾고 저자는 말한다. 도서관과 기록물보존소 모두 지역사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지역의 '기억'을 모아 놓고 관리하는 장소로서 두 기관은 공동의 기억을 연구하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저자는 도서관, 기록물보존소 그리고 박물관의 협력과 상호교류를 통한 '기억의 집'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면서 '기억의 집'이 매력적이기는 하지만 문화정책의 이름으로 획일화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6장의 마지막에서 기록물과 정보학과의 관계에 관심을 갖는데, 기록물 패러다임에 있어서

5) 김정하, 『기록물관리학 개론』, *op. cit.*, p. 243.

기록물이 문화인지 정보인지에 대한 논의에 대한 고민 속에서 나오게 된 내용이 아닌 가 싶다. 저자는 법적·행정적 가치에 이어 문화적 가치가 중요시 되었던 기록 관리에서 이제는 정보화 추세에 함께하며 기록물관리학이 정보학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저자는 사회공동체들에 있어 지역 전체의 모든 정보와 인간 활동을 수집하고 정리하며 체계화시키고 확산시키는 것이 현대의 기록물을 보존하고 미래에 전승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함께 더욱 필수적인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고 말한다.

본고의 앞부분에서도 언급했듯이, 『기록물관리학 개론』은 미국에서 작성되거나 미국의 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록물관리학 개론서가 아니라 유럽 각국의 내용들을 주로 다루며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기록물관리학에 입문하는 학생들에게 기록 관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기록관리라는 것이 기록물을 다루는 공동체 및 국가의 제도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 국가의 사례나 그 사례를 통해 만들어진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 따라서 본서의 기록 관리의 역사적 개관 및 다양한 사례·분석은 앞으로 기록관리전문가로서 맡을 딛고자 하는 예비 기록관리전문가들에게 일종의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며 기반지식을 제공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장에서 바티칸 비밀기록물보존소의 역사에 대한 설명은 이탈리아에서 공부한 저자의 경력이 십분 발휘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된다. 실제로 우리에게 바티칸은 비밀스러운 곳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바티칸 비밀기록물보존소의 역사에 대한 내용은 독자에게 비밀기록물보존소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좀 더 넓힐 수 있으며, 비밀기록물 및 비밀기록물보존소에 대한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원어병기가 이탈리아어와 영어의 혼용 - 이탈리아 관련 용어뿐 아니라 일반적인 기록관리 관련 용어조차도 이탈리아어로 표기되어 있기도 함 - 이 자주 눈에 띄었으며, 프랑스어의 경우 원어가 잘못 표현되거나, 숫자가 잘못 표시된 경우도 있었다. 다음 개정판에 반영하여 수정되기를 바란다.